

구렁덩덩신선비 이야기의 일상적 영웅성

— ‘허물(벗기)’과 관계성 —

이정훈(전북대)

〈목 차〉

- | | |
|------------------------------------|---------------------------------------|
| 1. 서론 | 4. 자기중심적 관계의 한계와 실패: 두 언니와 두 번째 부인(첩) |
| 2. 작품 개관과 서사단락 | 5. 일상적 영웅들의 위대함과 관계의 법칙 |
| 3. 이상적 관계를 위한 영웅성 발현: 구렁덩덩신선비와 셋째딸 | 6. 결론 |

1. 서론

구렁덩덩 신선비에 관한 기존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화 형태와 구조, 원형과 변이형을 분석하는 기본적인 작품 분석(김용덕·이원영·최민경·최래옥)이 있고, 내용 분석과 주제분석에 심리학적, 비교문학적, 사회학적 관점을 대입하여 의미를 고찰하는 연구도 있다. 심리학적 접근(이기대·심해진·곽의진)은 주로 용의 아니무스, 그림자의 개념을 사용해서 작품을 분석하거나 프로이드의 자아와 무의식적 개념을 차용하기도 한다. 비교문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자들(김환희·서대석)은 구렁덩덩 신선비가 잃어버린 남편을 탐색하는 유형(아르네 톰슨)과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프랑스나 중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2013S1A5B8A01072201)

국의 민담과 비교하기도 한다. 이외에 사회학적 논문(진은진·길태숙·신연우·김정은)도 있다. 사회학적 접근은 주로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결혼제도와 연결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구렁덩덩 신선비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구렁이 남편이 지니고 있는 성적 은유에서부터 셋째 딸의 능동적 의지로 이룩되는 조화로운 관계까지 언급될 정도로 매우 풍부한 일리를 확보하고 있다.

본고는 구렁덩덩 신선비의 내용의 기본 서사 단락을 점검하면서 많은 논자들이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는 ‘허물’ 금기나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자신의 허물을 지키라는 구렁덩덩 신선비의 금기 설정을 성적 해방과 억압이 동시에 작용(이기대)하는 것으로 보거나 여성들의 ‘그림자’와 ‘의식’간의 갈등으로 파악(신혜진)하고 있다. 구렁덩덩 신선비의 불완전한 변신의 원인을 딸의 실수로 돌리려는 의도(진은진)로 보거나 구렁이의 이기적 결과(이원영)로 보기도 한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와 달리, 구렁이의 허물 벗기와 변신의 과정을 구렁이의 영웅적 속성으로 보고자 한다. 일상적 과업 이상의 대업을 성취하는 것만이 영웅적이라는 거대담론적 관점으로 보자면, 구렁이의 과업 성취는 한미하고 평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구렁이의 인간변신, 혼장 역할은 자기 발전과 갱신의 결과일 수도 있다. 본고에서 구렁이의 허물벗기를 긍정적 에너지와 영웅적 자질로 파악하는 만큼, 허물을 둘러싼 인물들의 역할도 중요하게 다룬다. 실제 구렁이의 허물(벗기)과 연관있는 세 인물이 등장한다.

첫째는 셋째 딸로, 구렁이의 첫째 부인이다. 허물 금기를 지키지 못하여 남편을 찾아 떠난다. 둘째는 두 언니다. 구렁이가 남겨놓은 허물을 태워버림으로서, 두 사람의 결별을 초래한 인물들이다. 셋째는 둘째 부인(첩)이다. 첫째 부인과 이별한 후, 선비(혼장)가 되어 만난 여자이다. 선비와의 결혼 생활 중에, 결혼 직전에 나타난 첫째 부인과의 내기에서 져서 버림받는다. 세 명의 여자와 구렁덩덩 신선비를 묶는 매개는 ‘허물’이다. 허물을 벗고 변신하는 구렁덩덩 신선비나 허물을 강탈하여 태워버린 두 언니, 허물을 빼앗겨 남편을 찾아 떠나는 셋째 딸과 그녀에게 남편을 빼앗기는 두 번째 부인, 모든 인물들은 허물을 중심으로 배치된다. 이제 본격적인 작품분석을 하기 전에, 구렁덩덩 신선비 이야기의 양상을 살펴보고 세부적인 화소의 변주를 정리해보자.

2. 작품 개관과 서사단락

본고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인터넷 구비문학대계와 이치피디아에서 검색한 것이다.¹⁾ 구령당당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도출된 이야기 25편과 이치피디아 6편²⁾이다. 이중에 한 편은 민요만 짧게 언급되어 있어서 제외시켰다. 논의의 편의상 구술자의 이름을 중심으로 정리했다³⁾⁴⁾ 논의를 시작하기 앞서, 위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서사단락과 그 변이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본고의 서사 단락 역시 기존의 논의와 비슷하다. 하지만 허물을 중심으로 인물들의 관계성을 고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강조점이 다를 수 있다. 구령당당 신선비의 핵심 서사단락(11개)을 살펴보자.

1. 한 여자가 구령이를 낳았다.

여자는 대부분 가난(8도 거지 집안)하다. 하지만 간혹 부잣집 부인으로 묘사되고 있어도 대부분은 과부, 할머니, 늙은이, 여중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구령이를 낳은 이유도 다양하다. 생물학적 미신(똥 알을 먹었더니 구령이를 낳았다)이 반영되거나 도덕적인 원인(전생의 죄를 저서 그 대가로)도 있지만 대부분 아무 이유 없이 구령이를 낳는다. 천한 신분의 여자에게 닥친 또 하나의 불길한 징조로서 구령이 출산이 그려지고 있다.

- 1) 구비문학대계 사이트에서 '구령당당'이라는 검색어를 넣어서 이야기를 검색한 결과이다.
http://yoksa.aks.ac.kr/search/Search.jsp?fn=&search_word=&searchtype=0&mode=all&mType=0&searchText=&sobj=0&startdate=&enddate=&keywordtext=%EA%B5%AC%EB%A0%81%EB%8D%A9%EB%8D%A9&sopt=
- 2) 이치피디아에서 검색하면 122편이 뜨는데, 실제 구령당당신선비와 연관이 있는 이야기는 모두 6편으로 정리된다.
http://www.ichpedia.org/pedia/pedia_view/?sType=1&Keyword=%EA%B5%AC%EB%A0%81%EB%8D%A9%EB%8D%A9%EC%8B%A0%EC%84%A0%EB%B9%84
- 3) 1.손양분 2.우두남 3.신금순 4.김요지 5. 김판례 6.고아지 7.백금순 8.김판숙 9.김정형 10.유조숙 11.조한순 12.오수영 13.목수희 14.권은순 15.이금봉 16.이병근 17.김학기 18.황필녀 19.시봉님 20.송점순 21.박용애 22.고부리 23.전점목 24.임묘금 25.조한순 26.진안설화 27.최기우채록 28.곽사여 29.김의호1 30.김의호2
- 4) 서대석의 논문(1986년)에 구령당당 신선비의 핵심서사단락이 실려있다. 본고에서는 구령당당 신선비의 완결편이라 이름짓는 허물 금기 파계와 남편 찾아 떠나 재회하는 長型을 텍스트로 삼는다.

2. 이웃집에 세 딸이 있다.

이웃집은 부자거나 長者인 것이 대부분이다. 간혹 가난한 집 아이로 태어나 부잣집 구렁이아들에게 시집가야 하는 설정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자집이 부자거나 정승, 장자이다. 앞의 설정은 부잣집 딸과 가난한 구렁이의 성혼 여부를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이지만, 구렁덩덩 신선비의 서사 논리에서는 이러한 현실 논리는 논외의 영역처럼 취급되고 있다.

3. 두 딸은 구렁이를 멸시하고, 셋째 딸은 구렁덩덩 신선비라 한다.

두 딸은 모두 구렁이를 낳은 사실을 확인하고 침을 뱉거나 징그러워하며 노골적으로 멸시의 감정을 드러낸다. 그녀들의 호기심은 소녀적이며 철없이 재미있는 것을 구경삼아 나온 아가씨들과 같다. 할머니의 구렁이 출산이라는 비극적 상황 혹은 절박한 처지에 대한 아무런 공감이나 연민이 없다. 단지, 그들은 재미로 흥밋거리를 보듯이 구경온다. 그리고 두 딸은 평가와 저주, 판단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침을 뱉는다. 셋째 딸의 경우는 두 언니와 다르게 구렁이지만 신선비인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4. 구렁이가 어머니에게 셋째 딸과의 결혼을 조른다.

구렁이의 청혼은 셋째 딸의 언급이 빌미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모두 그렇지 않다. 하지만 구렁이가 자신을 대신해서 어머니를 보내 혼인을 요구하는 것은 모든 이야기에 있다. 이때 어머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들의 요구로 망설이고 주저한다. 이때 구렁이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강도가 여러 가지다. 그중에 과격적이며 폭력적인 방식이 ‘칼’과 ‘불’ 혹은 ‘나무’, ‘북’을 짊어지고 자신이 나온 구멍(구덕)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공포를 건드리는 표현이다.

5. 셋째 딸의 승낙을 얻는다.

승낙을 얻는 과정이나 승낙의 이유는 다양하다. 자청도 있고 효도를 위한 결심도 있다. 구렁덩덩 신선비라는 긍정적 평가보다 더 발전해서 구렁이신랑을 장군감으로 추켜세우며 결혼을 감행하기도 한다. 셋째 딸의 집안에서의 반응도 다양하다. 거부, 적극적인 반대, 조건부적 승낙, 무대응이 그것이다. 실제

현실적인 요인보다도 셋째 딸과 결연하기 위한 다양한 스토리가 전개되지만, 셋째 딸은 구렁이와 결혼한다.

6. 결혼한 뒤에 구렁이가 허물을 벗고 선비가 된다.

구렁이가 허물을 벗는데 셋째 딸의 역할은 미비하다. 구렁이는 자발적으로 허물을 벗는다. 스스로 그 비결을 알고 있어 모든 조건을 구비하여 목욕을 한 뒤에 허물을 벗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허물을 잘 간수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의 능력이자 한계, 과거이자 본질이었던 허물은 여자와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요건이다. 구렁이는 제 스스로 허물을 벗고 선비가 되어 길을 떠나며 여자에게 다른 여자들에게 절대로 들키지 말라고 하면서 간다. 정도에 따라서 방 안에 우물을 파놓고 모든 시설을 갖추어두고서 여자를 감금 상태로 놓아두는 경우도 있다. 아니면 옷고름이나 속곳에 매달아 두어 씻지도 못하게 한다.

7. 두 언니는 강제로 허물을 강탈하고 태운다.

두 언니의 방해나 훼방, 일방적인 허물태우기는 서사의 급진전을 위해 중요하다. 때로는 두 동생이 활약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두 언니가 등장한다. 두 언니는 더러운 구렁이가 선비가 된 상황에 당황하고 의혹을 품는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변신의 증거나 원인을 찾으려 한다. 두 언니는 동생의 비밀을 캐기 시작하고 괴롭혀 강제/실수로 허물을 불태우게 한다.

8. 허물 타는 냄새를 맡고 구렁이선비는 돌아오지 않는다.

허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자매들의 싸움과 비극적 결과는 여기서 일단락 된다. 극악스러운 방식으로 허물을 태운 대가로, 두 언니들은 벼락맞아 죽고 구렁덩덩신선비 내외만 승천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두 사람의 결별을 이끌어내고서 두 언니는 존재감을 잃는다. 구렁덩덩 신선비의 상당히 많은 유형이 이러한 비극적 결말을 유지한다.

9. 셋째 딸이 구렁덩덩신선비를 찾아 나선다.

셋째 딸은 남편의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허물을 지키지 못한 대가로 남편

을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을 알고 있다. 셋째 딸은 이런 상황에서 과감히 중의 복색으로 바뀌이거나 남북을 한 뒤 길을 떠난다. 길을 떠나 구렁덩덩신선비의 집을 찾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겪는다. 셋째 딸이 길 위에서 겪은 일의 공통점은 누구도 아무런 대가없이 그녀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요괴, 검은 빨래를 회계, 흰 빨래는 검게 빨아주는 일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야만 하는 현실적 팍팍함을 의미한다. 셋째 딸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 땅 속과 우물, 혹은 샘 속에 있는 구렁덩덩 신선비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동냥을 하며 유숙의 빌미를 얻어낸다.

10. 구렁덩덩신선비의 두 번째 부인과 시합을 벌인다.

셋째 딸은 남편의 집에 들어가는 데 성공한다. 이때 구렁덩덩 신선비는 결혼식을 앞둔 상태거나 이미 결혼한 상태다. 아내는 남편이 글을 읽는 방 아래 잠복한 상태에서 남편의 노래를 듣고 화답하여 극적인 재회를 한다. 재회 이후 아무런 역경이 없이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두 번째 부인과 내기를 벌인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마루에 숨어있던 첫째 부인을 벽장에 숨겨두고 동거하며 밥을 나눠먹는 등의 과정이 서술되기도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밀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부인에게 발각된다는 결과는 동일하다.

이때 구렁덩덩 신선비는 자신의 의지를 주장하기 보다는, 두 여자에게 내기를 내며 이기는 여자와 살겠다고 공언한다. 이때 내준 내기의 종류는 나막신 신고 물 길어오기, 나무 가지를 건들지 않고 새 잡아오기 등과 같은 것이다. 특히 호랑이 눈썹 뽑아오기 시합은 일종의 담력 시험으로, 셋째 딸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호랑이 할머니(어머니)의 도움으로 가능한 것이다.

11.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다.

모든 내기에서 셋째 딸이 승리하고 구렁덩덩 신선비와 재결합하여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이 전개된다. 버림받는 두 번째 여자에 대한 동정이나 미련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신선비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가서 현 된장의 가치를 논하며, 셋째 딸과의 재결합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고생해서 찾아온 셋째 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변함이 없다.

지금까지 구렁덩덩 신선비 이야기의 서사단락을 살펴보았다. 각 단락의 변

이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작품을 분석해 나가면서 언급하게 될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허물’을 중심으로 이상적 관계맺기에 관한 주제의식을 살펴보자.

3. 이상적 관계를 위한 영웅성 발현; 구렁덩덩신선비와 셋째딸

3.1. 구렁이남편의 신성함과 내면적 변화

3.1.1. 구렁이→인간 : 주도적인 탈각과 불완전한 변신

구렁이의 변신은 자발적이다. 구렁이는 셋째 딸과 결혼한 밤에 스스로 허물을 벗을 준비를 한다.⁵⁾ 이와 같이 자신의 존재를 고양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열등한 모습을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은 영웅적 자질에 속한다. 구렁이라는 설정을 판단하는 인간중심적 사고를 걷어낸다면, 구렁이에서 인간으로 자발적으로 탈각하는 모습은 신성함의 영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은 내면적 힘인 만큼 자족적인 영역이기 쉽다. 구렁이 역시 모든 준비를 갖춘 후 변신하고서 부인에게 알 수 없는 당부(명령 혹은 요구)를 한다.

하지만 구렁이가 능동적으로 계획하는 과정에 부인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 물론 이본에 따라 구렁이의 청혼을 수용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변신을 위한 감행은 아니다. 그것은 구렁이의 내적 자질이기에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구렁이가 셋째 딸과 혼인하기 전에 처한 상황은 고립과 은폐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구렁이의 돌연한 변신과 금제 설정은 부인에게는 일방적인 것이다. 구렁이가 육신의 모친을 원색적으로 위협하면서까지 자신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자를 얻었다고 하더라도,⁶⁾ 여자에게 구렁이의 인간변신은 ‘타자’의 영역에 속한 기적이다. 이

5) 아 저 삼년 묵은, 묵은 장 있는가? 인제 각시보고 부잣집인게 ‘있다고 했다. 그러면 한 사발만 퍼오라고 했다. 한 사발 그놈 죄다 주니까 그것을 먹고 초립동이 가 쪽 빠지니, 뱀 허물을 벗어지고(김판례 구술)

6) 구렁이의 모친위협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 가지다. 구렁이의 과도한 요구를 온전한 남성이

리한 구렁이의 자질은 신성한 영웅적 면모이나 동시에 불완전한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인간이 됐다는 사실로 사회적 존재로 거듭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순간에 구렁이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켜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길을 떠나는 것이다.

구렁이 남편과 부인을 이어주는 ‘허물’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부인의 실패 혹은 실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구렁이 남편에게 ‘허물’은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허물은 구렁이었던 시절을 증거해 준다. 구렁이여서 겪어왔던 열등감, 고립, 차단, 멸시, 천대와 같은 부정적 경험을 통째로 담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겪은 시련이 비참할수록 허물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신의 영웅성 혹은 성공의 전리품이다. 이런 점에서 구렁이남자는 자신의 상처와 극적으로 단절하고 인간으로 변신한 셈이다.

하지만 그의 변신은 불완전한 것이다. 사회적 자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인간이 된 것이기 때문이다. 구렁이 상태로 본다면 성공이지만, 인간 수준에서는 정지상태인 셈이다. 그의 불완전한 변신과 사회적 성취를 위해 떠나는 순간에 자신의 아내에게 허물을 잘 지켜야 돌아온다는 일방적인 금기를 설정한 것이다.

구렁이남편이 부가한 허물금기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구렁이 남편에게 허물이 이전의 열등감의 증거이자 불완전한 변신의 표시인 것처럼, 자신의 부인에게 설정한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보이지도 말라는 요구는 자신의 핵심적인 실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말라는 자존심의 표현이다. 이와 동시에 허물을 벗고서 잘생긴 남자로 변신한 신성한 능력의 징표인 경우에는, 아내에게 자신과 같은 독립적인 ‘비범’함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요구는 ‘나와 같이 되라’는 불가능한 요구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여자에게도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삶을 요구한 것이다. 여자의 주체성에 대해서는 기본 화소 정리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감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수동적인 응대까지 다채롭다. 하지만 그것은 구렁이의 변신이 불완전한 것처럼, 여자의 주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모성으로부터의 분리’ 혹은 입사식으로 보기도 한다. 이 글 역시 기본적인 전제를 이것으로 두되, 심리학적 의미부여보다는, 그가 보여준 자기 필요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현을 영웅적 자질의 한 부분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구렁이가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여자를 얻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를 파견하는 행위는 변신의 시기와 조건을 명확하게 인식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운명에 대한 확신은 영웅적 소명의식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체성도 미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구렁이의 금제 설정이 작용하여 여자의 주체성이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된다.

동시에 허물을 태우는 냄새를 맡으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선언은 자신과의 관계를 자매(들)에게 화젯거리로 제공하지 말라는 요구다. 이것은 좁게는 자신을 떨시켰던 두 언니에 대한 경고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부부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선택과 집중을 요구한 것이다. 구렁이가 어머니와의 인연을 끊겠다는 각오로 한 여자를 선택했던 것처럼, 셋째 딸 역시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자세로 자신과의 결혼 생활에 임하라는 요구다. 그것을 위해 구렁이의 자존심이자 상처인 ‘허물’을 지키는 근신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구렁이는 여자에게 동일한 의미로 근신과 탈각을 위한 준비를 요구한다. 셋째 딸의 근신 혹은 금기 엄수는 에벌레의 부화나 동굴 속에서의 금기, 웅녀가 견뎌냈던 시련과 동일한 것으로 구렁이의 변신에 걸맞는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구렁이의 요청은 의도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웅적 자질과 합당한 관계를 맺기 위한 기회부여다.

3.1.2. 인간→선비(훈장) : 내면적 자질 발현

구렁이는 인간으로 변신을 한 후에, 과거를 보기 위해 길을 떠난다. 하지만 과거를 보는 중에, 길을 가는 도중에 자신의 허물을 불태우는 냄새를 맡게 된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자기 변신과 발전의 과업을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 좌절되는 순간이다. 그러나 구렁덩덩 신선비는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성공한다. 단지 첫째 부인에 대한 실망과 그에 따른 이별은 예기치 않는 일이다. 하지만 일상적 삶의 구조는 견고하다. 구렁덩덩 신선비는 훈장이 되어 두 번째 부인과 평범하게 살고 있다.

하지만 두 번째 부인과의 삶은 허물벗기를 통한 극적인 변신과 성취감을 주었던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만큼 일상적이다. 구렁덩덩 신선비에게 그 시절, 저돌적이고 거침없던 시간은 그리움의 영역이고 자신만의 시간이다. 이러한 내면적 세계의 표출이 구렁덩덩 신선비의 독백 혹은 노래다. 자신을 찾아온 첫째 부인에 대한 신선비의 반응은 다양하다. 단순한 냉대와 외면이나 추궁을 하기도 하고, 환대와 그들만의 밀회를 적극적으로 즐기기도 한

다. 구렁이 신선비의 이러한 개인적인 행동은 목적지향적 동선을 지켜나가던 과거와 다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신선비의 감정 표현을 내면성과 연결짓고자 한다. 구렁덩덩 신선비의 이러한 변화는 반사회적이고 고립된 상태에서 체득한 내면성이다. 하지만 구렁덩덩 신선비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변신시킨 뒤, 사회적 지위를 획득했다. 그러나 현실적 논리로 엮인 둘째 부인과의 삶 속에서 그의 내면에 잠재해있던 여성적 자질들이 다시 표출된 것이다. 이것은 육신의 어머니를 향해 무시무시한 협박을 하던 구렁이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다.

3.2. 셋째 딸의 절망과 영웅적 의지

3.2.1. 변복과 가출 : 자신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의지

셋째 딸의 '구렁덩덩 신선비'라는 발언은 구렁이와의 결연에 발미가 된다. 셋째 딸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선비와의 행복한 결말을 근거로 셋째 딸의 지인지감을 말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셋째 딸의 그 표현은 두 언니와 구별되고 싶은 충동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이것은 두 언니에게 동조하고 싶지 않은 무의식적 반발심과 통한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두 언니들의 소녀적 호기심을 공유하고 있고, 주체화의 욕구 역시 다분히 충동적인 것이다. 그런 그녀에게 다가온 돌연한 행운은 두 언니의 노골적인 멸시에 대한 반발심에서 얻은 것이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호남자, 잘생긴 선비로 변한 것 자체가 절대적인 성공적 삶의 지표는 될 수 없다. 더군다나 구렁이의 변신에 개입된 어떤 적극적 의지도 없고 무엇 때문에 변신을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구렁이의 영웅적 변신으로 행운을 얻었지만 구렁이가 제시해준 영웅적 자질을 그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녀에게 다가온 생애 첫 번째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미숙함. 관계성에서 무엇을 단절해야하는지도 막연한 상태에서 다가온 행운을 지켜낼 여력이 없다. 구렁이와의 결합과 반전 혹은 예상외의 행운을 한 번 경험한 막내는 반신반의의 상태에 처해있다. 무력한 상태에서 무방비로 당하고, 무감각하게 당한다. 비밀 혹은 내밀한 관계를 강

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나약한 상태이다.

그러나 셋째 딸의 위대함은 악의적 방해이든 자신의 실수이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닥친 불행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습하고 극적인 변신을 감행한 것이다.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중의 복색으로 떠나는 것. 한 시기가 끝난 것을 조상하며 금욕과 근신의 복색으로 변복한 것이다. 그녀의 가출 감행은 자신의 허물 에 대한 책임이자, 익숙한 자신과의 결별을 의미한다. 또한 길을 떠나 구렁덩덩 신선비를 찾아서 우물로, 땅속으로, 샘으로 들어가는 여자들은 소녀의 감성에서 벗어나 여인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구렁덩덩 신선비는 여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남성을 얻기 위한 긴 여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녀들이 배운 것들은 조건과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현실의 이치, ‘때’가 되고 시간이 흘러야 자연스럽게 결과를 보게 된다는 삶의 원칙이다. 구렁이 남편이 간직하라고 건넨 ‘허물’은 그녀와 자신만의 ‘시간’을 간직하는 행위다. 말쑥한 선비와 결혼한 둘째 부인에게 본질적으로 결여된 그것이 바로 ‘기억’과 ‘시간’이다.

3.2.2. 대가 치르기와 승부욕 체현 : 현실적 질서에 대한 수용과 감내

중의 복색으로 혹은 남편차림을 길을 떠나는 셋째 딸의 모습은 구렁이가 자신을 가두고 있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벗어나려고 어머니를 협박하여 스스로 탈각을 감행한 것만큼 절박하다. 상황에 대한 빠른 수용과 적극적 대처에서 구렁이의 변신지점과 겹친다. 다시 말해 자기 실수를 혼자서 수습하여 인생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셋째 딸의 모습이 시간차이를 이루기는 하지만, 상황 파악과 적극적인 대처 방식면에서는 남편과 닮아있다. 부부의 자질이 대등해지는 순간이다. 비록 선후의 차이가 있긴 해도 ‘여자’로 인해 변신을 감행했던 구렁이나 ‘남편’으로 인해 변복을 감행한 셋째 딸의 모습은 겹친다. 이뿐만 아니라, 아무런 도움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운명을 수용해 나가는 모습과 결정적인 순간에 조력자를 획득하는 점에서도 두 사람의 경험은 비슷하다.⁷⁾

7) 구렁이남편이 자신의 변신을 위해 육친의 부모를 버리고 여자를 얻은 사실과 여자가 변복하여 길을 떠난 곳에서 겪은 수모와 곤경 이후에 남편을 얻기 위한 승부수에서 ‘늙은 호랑이’의

셋째 딸이 신선비의 집을 찾아나서며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건부로 도움을 준다. 그들은 순순히 그녀를 돕거나 하지 않고, 아쉽게 하고 대가를 쥐야만 움직인다. 동정 없는 세상의 교환가치를 체험한 끝에야 여자는 신선비의 집에 도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이미 결혼했거나 정혼한 상태다. 자신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아무런 조력자도 없이 찾아온 곳에서 셋째 딸은 동냥거지가 되어 전략적으로 신선비 곁에 가까이 다가간다. 셋째 딸의 이러한 노력 역시 구렁이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필사적으로, 위협적으로 셋째 딸과 조우하기 위해 애쓴 것의 복제판이다.

셋째 딸이 자신의 영웅성을 드러내는 방식은 사회적 질서를 터득하고 남성적 승부욕을 익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셋째 딸은 자신의 상품가치로서의 몸을 포기하고 여중이나 남북으로 변장한다. 이후에 길 위에서 터득한 사회의 모습은 계약과 조건부적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들이다. 그녀가 이겨내야 할 최고의 시험은 호랑이 눈썹 뽑기인데, 여성들의 싸움으로 보기에는 담력을 시험하는 성격이 짙다. 그런데 이런 남성적 영역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각오가 된 상황에서 행운과 조력자를 얻는다. 셋째 딸이 길 위에서,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것들은 남성적 질서와 자질을 이끌어 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구렁이 남편의 요구에 의해 키워진 그녀의 영웅성에는 그늘이 있다. 구렁이남편의 고난은 태생적 조건에서 시작되지만, 탈각을 스스로 감행한 이후에는 스스로의 계획대로 일정을 진행한다. 이에 반해 셋째 딸은 구렁이 남편과 이별한 후부터 길 위에서 둘째 부인과의 고된 시간이 남아있다.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시험의 고단함과 해결불가능성은 영웅적 자질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의 현실적 처지를 반영한다. 다시 말해 남녀가 대등하게 공존하며 '행복'하게 사는 이상적 관계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특별한 능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것을 극복하고 남성(남편)과 조화롭게 지내며 행복한 감정을 누리고 사는 여자들은 영웅적 노력과 의지를 지닌 자들이다. 하지만 구렁이신선비에서는 남녀의 성적 차별이나 현실적 그러나 그 과업의 대가가 남편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그녀들의 영웅성은 오히려 극복의지, 실수를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주체성, 개별성, 개성 등의 요인이라는 것

원조를 입는 것을 말한다.

이 중요하다.

4. 자기중심적 관계의 한계와 실패 : 두 언니와 두 번째 부인(첩)

4.1. 두 언니의 허물강탈과 소각 : 자기 오류의 노출과 은폐 시도

두 언니는 구렁이의 허물 벗기와 변신과정에서 셋째 딸과 대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두 언니의 행동에 대한 주목을 많이 하지 않았다. 설화 구연자들도 두 언니의 행동을 동생이 잘 된 것에 대한 질투 혹은 시기심으로만 언급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두 언니의 폭력적 행동을 노출된 자기 오류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고자 한다. 구렁이의 출산 소식을 보고 달려가는 두 언니는 셋째 딸과 같이 호기심 어린 행동이다. 오히려 두 언니의 반응은 어떤 면에서 셋째 딸의 인사치레보다 더 솔직하다. 구렁이를 보고 징그럽다고 더럽다고 말하며 침을 뱉는 것은 부도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두 언니는 자신들이 괴롭히고 무시했던 동생이 돌연한 행운을 얻자 포악하게 돌변한다. 두 언니의 폭력성은 여전히 무엇인가를 궁금해 하는, 아기를 낳았고 하니 낳은 것을 폄평하고 끝까지 확인해야 하는 소녀적 호기심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구렁이의 출산 현장으로 달려가던 그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구비문학대계의 많은 화자들은 두 언니의 이런 횡포에 강한 공감대와 공분을 표출한다. 이러한 두 언니의 행동은 단순한 시기 질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언니들이 허물을 강탈하거나 소각하려고 했던 시기의 구렁이남편은 단지 '인간'일 뿐이다. 자신들의 동생들이 (잘생긴) 남자와 산다는 것만으로 극악을 떨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그 시점에 구렁이 남편은 과거 급제를 했거나 신분적 안정을 얻은 상태가 아니었다.

두 언니에게 허물은 자신들의 실수나 잘못을 상기시키는 물건이다. 셋째 딸이 속곳이나 웃고름에 매어 단 허물은 그녀들에게 자신들이 저질렀던 판단

과 멸시를 기억시키는 물건이다. 이런 점에서 두 언니는 자신의 잘못을 반추하거나 반성하는 성숙한 여자들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솔한 언행을 사과하거나 오류를 인정할 정도로 용감하지 않다. 두 사람의 비밀을 캐내고 말겠다는 그녀들의 집념은 자신들이 틀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과 연결된다. 이것은 자신들의 속됨을 지우고 싶은 오기이지, 인간 남편과 사는 동생에 대한 단순한 질투가 아니다. 이들의 독기 어린 집념은 구렁이의 주도적인 변신이나 셋째 딸의 變服과 같은 용기가 결여되어 있다. 오히려 자신들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허물’을 태워버리는 이기적인 인간일 뿐이다. 그녀들에게 동생과 구렁이 남편의 결별 혹은 불행은 안중에 없다.

4.2. 실패한 두 번째 부인: 관계의 어긋남과 한계의 노출

두 번째 부인은 첫째 부인에 비해 사회적 지위를 확보한 인간 남편을 만났다. 현실적으로 훈장인 남자와 결혼한 여자의 삶은 이야기 거리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그가 구렁이였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는 첫째 부인이 등장하여 남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은 문제적이다. 이야기 문맥상으로 그녀가 자신의 남편이 지니고 있는 과거를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그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야기도 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남편이 밥을 많이 먹는 것을 수상히 여겨 남편의 방을 수색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부인의 적극성 유무와 상관없이 두 사람은 한 남자를 두고 본격적인 내기를 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 혹은 첩은 늘 내기에서 실패한다.

어떤 관점에서는 인간 남편과 결합한 둘째 부인은 ‘현재’적이고, 첫째 부인은 과거일 뿐이다. 그런데 구렁이 남편은 시험에서 이긴 여자와 살겠다고 한다. 이본 가운데는 구렁이 남편이 적극적으로 내기와 상관없이 조강지처의 소중함을 피력하거나, 역으로 첫째 부인과의 과거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때에도 첫째 부인이 가져온 자신의 ‘허물’(혹은 그 재)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첫째 부인을 받아들이고 첩을 버린다. 이런 점에서 두 번째 부인 역시 구렁이의 ‘허물’과 이어지는 인물이다.

구렁이와 셋째 딸의 결합은 ‘허물벗기’ 순간에서 극대화된다. 더군다나 구렁이에게 ‘허물’은 상처이자 성공의 이중적 의미를 지닌 것이다. 구렁이 인생

에서 탈각의 순간은 존재의 변화를 이루는 극적인 기억이다. 둘째 부인은 인간 남편의 비상상태와 그들을 알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둘째 부인과의 결합은 현실적이며 평범하다. 이에 비하면 첫째 부인과 구렁이신랑의 결합은 개별적이며 실존적인 경험이다. 두 사람의 결합은 내밀한 비밀로 유지되었고 구별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인간 남편의 구렁이 시절은 그의 정체성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자, 온전한 자아를 찾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첫째 부인과의 내기에서 둘째 부인은 내적 동기에서 이미 패배를 예견하고 있다. 그녀에게 제시된 난제가 비상식적이며 비상한 답력을 요구하는 난제이기 때문이다. 첫째 부인과 구렁이신랑은 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이전에 자신의 상처(실수)와 치열하게 대면하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영웅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둘째 부인의 상황은 평면적이고 현실적인 안정감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돌발적 상황이나 비상한 의지를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역부족인 자신을 인정해야 하는 성숙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것은 비범과 평범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허물’을 둘러싸고 구렁이남편과 첫째 부인이 치러낸 고독과 좌절에 비하면, 두 번째 부인의 ‘때’와 ‘시기’가 구렁이남편과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일상적 영웅들의 위대함과 관계의 법칙

일반적인 영웅담의 서사구조는 비범한(신이한) 출생-시련-극복-과업성취이다. 영웅의 과업은 거대하고 집단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위대한 영웅을 칭송하거나 거대한 역사적 과업에 대해 회의적인 시대에서, 일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평범한 삶을 영웅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거대과업을 완수하며 신이한 출생으로 신비화되는 비범한 영웅담의 개념에서 벗어나, 운명 개척 의지나 자기변신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영웅성을 해석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구렁이신랑 신선비 역시 이러한 작고 개인적인 과업을 완수한 소박한 영웅이다.

구렁이신선비는 비참한 출생의 범주에서도 벗어나,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출생한다. 그의 시련은 멸시와 조롱 천대이며 밀폐된 공간 속에 갇혀 지낸다.

하지만 구렁이가 시련을 극복하는 방식은 오히려 인맥과 혈통을 동원하여 시련을 극복하는 주몽이나 여타의 영웅보다 더 극적이고 자발적이다. 스스로 변신의 '때'를 기획하고 여자와 결혼하여 탈각의 조건을 구성한다. 이러한 자발성은 固執과 溫習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사는 인간적 한계를 능가하는 것이다. 본고는 구렁이의 이러한 자질을 영웅성의 발현으로 파악했다. 또한 구렁덩덩 신선비는 구렁이와 선비의 삶을 동시에 살았다. 사회적 조건이나 일상을 박탈당한 소외 계층으로 태어나, 선비로 삶을 마감하는 그것만으로도 영웅적 삶이라고 기릴 수 있다.

셋째 딸도 마찬가지다. 특히 셋째 딸의 삶은 구렁이남편이 제시해준 허물 간직하기를 실패한 곳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셋째 딸 역시 구렁이와의 결혼, 失夫와 正室婦人의 삶을 겪는 시련을 겪는다. 그녀가 돌연한 행운을 박탈당한 것을 인정하고 상황을 수습하여 자신의 방향성을 추진한 것은 영웅적 용기다. 그것이 남편을 위한 긴 여정이라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하지만 '남편'을 찾는 과정은 그녀가 감당해야 하는 삶의 긴 여정과 투지를 투사시켜 주는 시대적 객체다. 셋째 딸과 구렁덩덩 신선비는 이런 의미에서 영웅적 기질을 공유한다. 그들이 추구한 영웅적 과업이란 일상적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이란 남편 혹은 자식이란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구렁이였던 남자가 변신하여 일가를 이루고, 모든 여자들의 버림을 받던 남자에서 두 여자를 저울질 할 수 있는 상태로 변신했다는 설정은 남자의 내밀한 자존심을 건드려서 버림받은 여자들이 자신의 남편을 되찾아오는 과정과 동일한 구조이다. 즉, 이성 혹은 가정을 이루고 사는 평범한 삶을 박탈당한 자들이 다시 삶의 일상적 체재로 복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업의 완수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강인한 의지나 능동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한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의 영웅성이 자신의 상처나 치명적 실수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운명애를 지닌, 혹은 자신의 상처와 싸우는 영웅들이다. 이들은 모두 실패의 영웅이고, 소외된 조건에 처해있는 영웅이다. 일생의 과업으로 완수한 것은 다른 여자에게 빼긴 남편을 다시 찾는 것이며, 인간으로 변신해서 사는 것이 전부이다. 하지만 이

들이 지닌 영웅성의 기초는 이러한 자신의 실존적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운명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삶을 진행시켜 나간 점에 있다. 이들의 영웅성은 보이는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조건 혹은 실수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현된다.

구렁덩덩 신선비와 셋째 딸의 삶과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두 언니와 둘째 부인이다. 그들은 비천한 출신을 비웃고 조롱한다. 이들에게 구렁이의 허물은 자신들의 열등함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둘째 부인에게 구렁이 허물은 우월한 남편의 어둠이다. 그녀에게 다가온 첫째 부인과의 내기는 자신의 내면적 용기와 남편과의 관계의 근거를 노출해야 할 정도로 '난제'다. 하지만 둘째 부인의 시간은, 구렁이남편과 첫째 부인이 감수했던 운명애와 영웅적 자발성에 비하면 이른 것이었다. 이렇게 어긋난 관계의 결과물이 패배이다. 이들은 천벌을 받아 죽거나 버림을 받는다. 이들의 불행은 상생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영웅적 의지를 바탕으로 한 노력의 결과물인지를 보여준다.

6. 결론

본고는 기존의 구렁덩덩신선비에 관한 풍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일상적 영웅성 발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기존에 구렁덩덩 신선비에 관한 논의는 정신분석학적 접근에서부터 사회학적 주제의식으로부터 폭넓게 시도되었다. 이전의 논의의 전제는 설화는 집단무의식의 표현이나 문화적 원형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고에 등장하는 일상적 영웅성은 개인의 내적 자절이나 소설적 주체의 자아 개념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구렁덩덩 신선비를 소설작품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구렁덩덩 신선비의 서사구조에서 비현실적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허물'벗기와 인간 변신이 지니고 있는 주제의식을 고찰하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구렁이가 자발적으로 변신을 하고 선비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는 설화적 비논리성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허물벗기 모티프와 연관을 맺는 인물들의 관계성에 주목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구렁이의 허물과 변신의 과정을 자기 갱신 능력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비범한' 영웅들의 과업에 비하면 구렁이의 영웅성은 '인간화'일 뿐이다. 인간중심적 사고를 본다면 이것은 미약한 능력이지만, 동물과 인간, 신적 속성의 위계질서를 배제했을 때는 그 자체로 영웅적인 과업 완수다. 구렁이의 인간 변신과 허물 금제는 구렁덩덩 신선비 이야기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모티프다. 그리고 그 '허물'의 의미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가 설정한 금제의 성격도 풀린다. 본고는 이것에 착안하여 구렁이의 허물벗기와 인물들의 관계성을 고찰한 것이다. 구렁이의 허물과 연관을 맺는 사람은 첫째 부인, 첫째 부인의 두 언니, 두 번째 부인이다.

구렁이남편과 셋째 딸은 서로의 영웅적 자질을 발현시켜 주는 이상적인 관계이다. 구렁이가 설정한 허물 금제는 셋째 딸에게 존재의 변신을 촉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급작스러운 요구였기에 파기된다. 그러나 이후에 셋째 딸이 보여준 노력은 자발적이고 절박한 의지의 발현이다. 두 사람은 자신의 실패 앞에서 자발적인 선택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경험을 공유한다. 그리고 불완전한 변신 상태를 서로를 통해 완성한다는 점도 비슷하다.

이와 달리, 두 언니는 구렁이 남편이 벗어놓은 허물을 강탈하여 소각시킨다. 두 언니는 구렁이남편과 셋째 딸의 영원한 결별을 초래한다. 두 언니의 이러한 행동은 인간 남편과 혼인한 동생에 대한 단순한 질투가 아니다. 두 언니에게 구렁이의 허물은 자신들의 판단 오류와 미성숙을 증거하는 것이다. 두 언니는 구렁이의 출생과 청혼에 멸시와 저주를 내뿜었다. 다시 말해 구렁이가 인간이 된 상황은 자신들이 행했던 악행과 속물적 우월의식을 전면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오류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통해 저주받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구렁이가 인간이 되어 결합한 두 번째 부인이 등장한다. 둘째 부인은 선비 남편의 과거, 허물을 모른다. 아니, 둘째 부인이 인간 남편의 구렁이 시절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 그녀에게 당면한 난제는 남편의 과거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두 여자 사이에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대결은 비상한 용기와 집념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허물을 스스로 벗고 신선비가 된 남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첫 번째 부인 앞에서 패배한다. 왜냐하면

첫째 부인 역시, 허물금제를 위반했던 대가를 스스로 감당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두 번째 부인은 인간남편과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위협받아 자신의 삶을 재구성해야 하는 국면이다.

본고는 구렁덩덩 신선비 이야기 속에 중요한 모티프로 등장하는 ‘허물’벗기와 금제 설정을 중심으로 일상적 영웅성을 살펴본 것이다. 구렁이 남편의 운명에는 스스로의 존재를 고양시킬 수 있는 영웅적 에너지가 발현된 것이다. 그의 첫 번째 부인 역시, 실수를 만회하려는 적극성과 불굴의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위대하다. 다만, 구렁덩덩 신선비가 내적 자질과 필요조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비해, 셋째 딸이 거지행세를 감행할 정도로 고생을 한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일상적 영웅성을 발현하고 있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의 지속이라는 ‘평범’한 과업을 성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등하다.

〈참고문헌〉

- 고혜경, 『선녀는 왜 나무꾼을 떠났을까』, 한겨레출판, 2006년.
- 곽의숙, 「구렁덩덩신선비의 상징성 고찰」, 『국어국문학』 제 25집,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88, 223-234면.
- 길태숙, 「구렁덩덩신선비, 세경본풀이, 발매기노래에 나타난 ‘남편찾기’와 ‘결합’의 의미」, 『열상고전연구』 제 16집, 열상고전연구회, 2002, 281-312면.
- 김용덕, 「상사뱀설화의 구조분석과 의미연구」, 『한국언어문화』 제 18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0, 351-381면.
- 김정은, 「금기를 통한 ‘신랑 되찾기’ 서사의 의미 고찰」, 『겨레어문학』 제 47집, 겨레어문학회, 2011, 5-31면.
- 김환희, 「구렁덩덩신선비와 외국 뱀신랑설화의 서사구조와 상징성에 대한 비교문학적 고찰」, 『동화와 번역』 제 4집,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02, 101-123면.
- 서대석·최래옥, 「구렁덩덩신선비의 신화적 성격, 질의」, 『고전문학연구』 제 3집, 한국고전문학회, 1986, 172-205면.
- 신연우, 「구렁덩덩신선비 설화의 결혼 상징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 2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121-150면.
- 신혜진, 「구렁덩덩신선비의 상징성-여성 의식세계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제 27집, 한국민속학회, 1995, 203-230면.
- 이기대, 「구렁덩덩신선비의 심리적 고찰」, 『우리어문연구』 제 16집, 우리어문학회, 2001, 311-341면.
- 이월영, 「변신설화의 원형적 의미 구조와 그 현대적 변용: 구렁이 변신담에 담긴 수성, 인성, 신성의 요소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국어국문과 석사, 2010, 223-234면.
- 조은상, 「구렁덩덩신선비의 각편 유형과 자기서사의 관련 양상」, 『겨레어문학』 제 46집, 겨레어문학회, 2011, 291-327면.
- 진은진, 「여성탐색담의 서사적 전통 연구」, 경희대학교 국어국문과 박사,

2002, 223-234면

- 최래옥, 『설화 구술상의 제문제에 대한 고찰-蛇郎譚 구렁덩덩신선비의 채록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제 4집, 한국민속학회, 1971, 67-92면.
- 최민경, 『금기설화 연구: 작제건, 장자못, 구렁덩덩신선비 설화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국어교육과 석사, 2010, 223-234면.

【국문초록】

본고는 구렁덩덩 신선비 이야기에 등장하는 ‘허물’의 의미를 중심으로 등장 인물들이 어떤 식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연구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구렁이의 허물과 변신의 과정을 자기 갱신 능력으로 파악한다. 자기 한계에서 습관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인간적 한계에 비추어 본다면, 구렁이의 변신능력은 영웅적 자질이다. 인간중심의 관점에서 초월적 과업을 완수하는 것만이 영웅이라고 말하겠지만,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지우고, 구렁이의 인간화는 인간의 나약함에 견주어 스스로를 변신시켜 존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자질이기에 영웅적이다. 본고는 구렁덩덩 신선비에 등장하는 ‘허물’벗기와 금제 설정’에 연관된 인물들과의 관계성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구렁이남편과 셋째 딸은 서로의 영웅적 자질을 발현시켜 주는 이상적인 관계이다. 구렁이가 설정한 허물 금제는 셋째 딸에게 존재의 변신을 촉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급작스러운 요구였기에 파기된다. 그러나 이후에 셋째 딸이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감행한 변복과 가출은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선택이다. 셋째 딸은 길 위에서 현실적 논리를 습득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남편을 얻는다.

둘째, 구렁이의 허물을 태운 두 언니가 등장한다. 두 언니의 개입은 구렁이 남편과 셋째 딸의 영원한 결별을 초래한다. 두 언니가 필사적으로 허물을 찾아내 소각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다. 인간남편과의 결혼은 오히려 상식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두 언니가 구렁이 허물을 불태우려고 했던 이유는 자기 오류를 은폐하려는 시도다. 구렁이 남편과 셋째 딸이 자기 갱신을 하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결국 두 언니는 자신들의 허물을 감추기 위한 무리한 행동으로 저주를 받거나 죽음을 당한다.

셋째, 구렁이 남편의 두 번째 부인이 등장한다. 이 부인은 선비 남편의 과거나 허물과 단절된 상태다. 남편과의 과거를 빌미로 자신의 현재 위치를 위협당한다. 그녀에게 있어서 구렁이 남편의 ‘허물’은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안정된/평범한 결혼생활의 어둠을 의미한다. 인간인 상태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한 두 번째 부인은 그들이 헤쳐온 떨시와 극복의 이력을 따라갈 수가 없다.

결국 아내 자리를 놓고 그녀 앞에 놓인 난제는 그녀의 삶을 재점검하게 하는 장애물이다. 첫째 부인과 구렁덩덩 신선비는 그러한 장애물(허물)을 이미 극복한 관계라면, 두 번째 부인은 실패한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구렁덩덩 신선비 이야기는 스스로 존재를 고양시킬 수 있는 영웅적 에너지를 구렁이의 변신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것과 함께 이상적 관계를 위해 주도적이고 개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강조되고 있다.

주제어 : 구렁덩덩 신선비, 영웅성, 허물, 변신, 금계, 파기, 두 언니, 둘째 부인, 탈각, 변복, 가출, 은폐, 빈약한 연대감, 남성적 에너지, 주도성

【Abstracts】

A Study on General Heroism of Gureongdeongdeong Sinseonbi Story

– Focusing on Meaning of Heomeul and Building Relationship –

Choon Hoon,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characters in the Gureongdeongdeong Sinseonbi Story build relationship between them, considering the meaning of 'Heomeul' in the story. This study refers to heomeul or molting process of a snake as self-improvement capability. Such ability to change is a quality of a hero. Although it is less important compared to achievement of historic tasks, self-improvement for changing him/herself also is heroic qualific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nake husband and the third daughter is ideal in enhancing heroic qualification of each other. Heomeul prohibition set by the snake evokes change of the existence by the third daughter. However, the request was ignored as it was very sudden. Efforts made by the third daughter is the expression of spontaneous and independent will. There are two sisters who burnt Heomeul. The intervention of two sisters cause eternal separation between the snake husband and the third daughter. While the snake husband and the third daughter regenerate, two sisters burn Heomeul, which represents their errors or mistakes. This story shows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nake husband and the second

wife. The second wife does not know the past (Heomeul) of her husband. She married the husband with practical reasons. Therefore, when the first wife who witnessed the change process made an appearance, the second wife was abandoned.

This story shows heroic energy that can enhance the existence by him/herself with changing process of the snake. In addition, it emphasizes that initiative and individual efforts are necessary to build ideal relationship. However, roughness to maintain harmonious life in the marriage is also see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y meet the husband again only when the third daughter completes the impossible task with endless efforts.

Key words : Heroism, Gureongdeongdeong Sinseonbi Story, Heomeul, Relationship, self-improvement capability, third daughter, The second wife, Two sisters

이 논문은 2014년 7월 3일에 투고되었으며, 2014년 8월 6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4년 8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